장보고 창건한

완도 법화사지 실체 확인됐다

완도군 · 동서문화재硏, 학술 발굴 조사 설명회

해상왕 장보고의 불심을 엿볼 수 있는 완도 법화사지의 실체가 확인됐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10월 25일 완도군 장좌리 법화사지 학술 발굴 현장에서 설명회를 열고 "법화사가 1200년 전 통일신라시대 해상왕 장보고 대사가 창건한 것이 확실하다고 추정되는 유구와 유물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 발굴은 완도군이 문화재 발굴업체인 (재)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이뤄졌다.

그간 법화사지는 위치를 놓고 여러 이견이 있었지만, 발굴을 통해 정확한 위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화사지를 놓고 장좌리, 죽청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꼽혀 1982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조사를 진행했으나 절터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후 1990년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통해 장좌리에서 계단식 기단 위에 건물터가 확인됐고, 2016년 (재)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의 시굴 조사에서 중정지와 담장지가 발굴됐다.

발굴 결과 법화사지는 사역 전체에 장방형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ㅁ' 자형 중정지를 중심으로 건물지가 대칭된 형태로 마주하는 배치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담장지에서는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담장이 축조된 시기가 대체로 12~13세기에 해당됨을 확인됐다. 또한 출토된

10월 25일 장좌리 일원서
건물지 · 통일신라 기와 확인
고려代까지 지속 운영 추정
2019년까지 사지 발굴 진행
사찰 복원 · 유물관 건립 계획

기와 중에는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기와도 있어, 중창 당시 일부 재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주승 완도군청 문화재팀 학예연구사는 "중정지의 조성 수법과 건물지마다 확인되는 암거식 배수로 등은 법화사지 축조에 있어 구조적 세밀함을 엿볼 수 있다"면서 "이번 조사를 통해



완도 장좌리 일원서 발굴된 법화사지 건물지 일부 전경. 사진제공=완도군청

법화사지는 건축 전반에 걸쳐 정밀한 기획과 설계를 바탕으로 절제된 공간 구성과 미학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구현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동문선〉에 기록된 강진 백련사 2세 정명국사 천인 스님(1205~1248)이 몽골군 침략을 피해 완도 법화암으로 피난한 기록을 통해 "역사적 사료로 전하는 시기와 법화사지 발굴조사 결과 확인되는 고려시대 유적 및 유물이 시기적으로 일치해 완도 법화사지가 통일신라시대 창건돼 고려 중기까지 지속 · 운영됐음을 알 수 있다"고 이 학예연구사는 강조했다.

한편, 완도군은 오는 2019년까지 발굴을 진행하고 법화사지 복원을 위한 학술적 자료를 수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에는 법화사 복원과 발굴 유물 기념관 설립도 추진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향후 법화사지 전역에 대한 정밀 발굴 조사를 통해 사지 전체에 대한 구조가 밝혀지게 되면 당시 구현된 건축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인근 장도 청해진 유적과 더불어 통일신라시대 청해진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교 근대 유산, 문화재 등록 잇달아

문화재청, 정광정혜원 등록 · 성륜사 안심당 등록 예고



목포 정광정혜원



곡성 성륜사 안심당 · 육화당

불교 근대 유산이 잇달아 문화재 등록이 이뤄져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0월 23일 근대문화유산으로 가치가 있는 목포 정광정혜원, 영광 원불교 신흥교단 대각정 등과 항일독립문화유산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당진 소난지도 의병총 등 8건을 문화재로 등록했다.

등록문화재 제696호로 지정된 '목포 정광정혜원'은 1918년 세워진 사찰로 불당과 요사채가 장방형(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한 건물 내에서 예불공간과 생활공간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등 일본식 사찰의 독특한 평면구조와 공간구성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10월 19일 곡성 성륜사의 전각인 안심당 · 육화당을 비롯한 7건의 근대 유산들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곡성 성륜사 안심당 · 육화당은 1920년 구례 지역의 상류가옥인 국포고택을 1987년 곡성으로 옮겨 지은 건축물이다.

문화재청은 "전통한옥 건축형식을 기본으로 근대기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근대 건축기법을 부분 적용해 한옥의 시대적 변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근대기 활동 화가이자 남종화의 거장인 아산 조방원(1922~2014)의 전통문화예술 교육과 창작을 위한 전승공간으로서도 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등록 예고된 곡성 성륜사 안심당 · 육화당 등 7건은 30일 간의 등록 예고를 거쳐 의견 수렴 후 문화재로 등록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깨달음 논쟁' 시리즈 2번째 학술대회 열린다

불교학연구회, 11월 11일 대회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연속 연찬회를 열고 있는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가 2번째 연찬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불교학연구회는 11월 11일 오전 9시 동국대 혜화관 2층 고순청세미나실서 '인도 · 중국 · 티베트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연찬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깨달음 논쟁'을 주제로 한 2번째 연찬 학술대회다.

백봉선원장 월암 스님의 '선의 깨달음'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한상(동국대)의 '초기불교에서 본 재가자의 깨달음-순차적 공부와 차제설법을 중심으로' △김성철(금강대)의 '유가행파의 해탈적 인식' △이병욱(고려대)의 '천태종에서 바라보는 깨달음' 등이 발표된다.

또한 논평자로는 김준호(울산대), 이필원(동국대 경주캠), 남수영(동국대), 차상엽(금강대), 석길암(동국대 경주캠), 조윤경(동국대)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세친 철학 등 소장학자 논문 · 번역 눈길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 14회 지원사업 결과 발표

이규완 연구원 등 4명 수상
논문 · 번역 부문 총서로 출간
오는 11월 1일 시상식 개최



이규완



박선영



최지연



류현정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회장 법상)이 매년 시행하는 불교소장학자 지원사업의 올해 수상자가 발표됐다.

(사)불교학연구지원사업회는 10월 2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14회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 수상자로 박사 논문 부문에 이규완 서울대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의 '극미 해석을 통해 본 세친 철학의 전이', 번역 부문에 박선영(동국대 불교미술학과 박사과정 수료) 씨의 〈열반과 미륵의 도상학(미야지 아키라 著)〉, 최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원 · 류현정(동국대 인도철학과 박사) 씨의 공역 〈사운다라난다(아쉬바고샤 著)〉가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규완 연구원의 올해 박사학위 논문 '극미 해석을 통해 본 세친 철학의 전이'는 구사론주 세친의 극미설을 구사론과 유식이십론을 중심으로 고찰해, 경량부적 실재론자에서 유식론자로 발전하는 세친의 사상적 궤적을 추적하고 있다.

심사위원들은 "유식이십론에서 이루어지는 극미론 비판에 착안해 기존 연구에서는 다소 등한시 한 극미론을 통해 세친의 사상적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논문의 서술은 원전에 근거해 매우 치밀하게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원전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견지하는 사유의 힘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선영 씨의 〈열반과 미륵의 도상학〉은 미야지 아키라의 저서로 미술사 분야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론서다.

심사위원들은 "번역되면 국내의 불교미술 이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책"이라며 "제출된 번역 원고는 내용 이해가 정확할 뿐만 아니라 문장도 유려해 좋은 번역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일반연구원, 류현정 씨가 공역하기로 한 〈사운다라난다〉는 아쉬바고샤(마명)의 저서로, 〈불소행찬〉과 더불어 불교 산스크리트 문학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 하지만 한국에는 번역되지 않고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이 같은 문헌이 국역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의 산스크리트학 수준의 부족함을 준다"면서도 "지금이라도 국역이 시도되는 것은 최근 산스크리트학 발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4회 불교 소장학자 지원사업 시상식은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 강남포교원에서 열리며, 박사 부문에는 편당 500만 원, 번역 지원 부문에는 편당 1천만 원이 지원금이 수여된다. 신성민 기자

종교교육, '뇌과학'을 말하다

종교교육학회, 11월 3일 추계 학술대회

뇌과학을 통해 종교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종교교육학회(회장 김세곤)는 11월 3일 오후 1시 동국대 덕암세미나실에서 '뇌과학과 종교교육'을 주제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대회에서는 안호영(동국대)의 '종교, 교육은 가능한가- 뇌과학과 선불교를 중심으로'를 비롯해 △김경이 · 우정원(가톨릭대)의 '가톨릭 종교교육을 위한 뇌기반 학습과학 연구 동향 고찰' △정혜정(원광대)의 '뇌과학과 동학의 마음교육' △류현민(선문대)의 '신념 및 신앙 형성 메커니즘에 대한 뇌과학적 고찰' △유제덕(서울신학대)의 '뇌과학과 기독교 교육- 개신교를 중심으로' 등이 발표된다.

신성민 기자

동아시아 재가불교 역할과 위상은

한국불교연구원, 11월 4일 초청 특강 · 좌담회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위상을 논의하는 특강이 열린다.

(사)한국불교연구원(이사장 김종화)는 11월 4일 오후 2시 연구원 서울 법당에서 '불연 이기영 선생 추모 초청특강 및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행사에서는 안나카 나오후미 일본 입정대 교수가 '일본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강연 후에는 이태승 한국불교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동아시아 재가불교의 역할과 실제'를 주제로 한 좌담회가 진행된다. 좌담회 패널로는 안나카 나오후미,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곽뢰 동국대 불교학술원 연구교수, 원영상 원광대 정역원 교수가 참여한다.

또한, 불영 이기영 선생을 추모하는 기념행사와 신진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된다.

신성민 기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1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